대불련 창립 60돌…“학내 포교 · 전법 앞장”

9월 16일, 동국대서 기념법회
선배 · 재학생 “불교 중흥 발원”
이순규 등 동문에 감사 · 공로패
전법센터 건립 천일정진도 회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대불련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불교 현대화 · 대중화를 염원했던 대학생 불자들의 열정이 대불련 60주년을 이끌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선배 · 재학생 모두 마음을 뭉쳐 다시 한 번 불교중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불련 100년을 향한 닻을 올립시다.”

신호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회장의 개막선언에 대불련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대불련의 지나온 60년 과정을 발판삼아 향후 100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유정현)와 대불련총동문회는 9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 중강당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법회-우리는 하나, 대불련의 이름으로’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불련 창립 동문인 관음종 종정 흥파 스님을 비롯해 신호철 대불련 초대회장, 이상훈 교불련회장,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유정현 대불련 회장 등 동문과 재학생 등이 참석해 창립 60주년을 자축했다.

대불련 60년 역사를 담은 자료집 〈대불련 60사〉를 대표로 봉정한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대학의 전법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했다.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를 막기 위해 대불련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대불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승태 대불련총동문회장 권한대행은 “대불련 60년 역사는 올곧이 캠퍼스 포교의 역사다. 대학 전법의 주인공은 대불련 재학생들”이라며 “우리 동문들은 재학생들의 무한능력을 믿고 함께 응원하고 동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대불련 3대회장을 역임한 관음종 종정 흥파 스님은 창립부터의 과정을 회상하며 대불련의 발전을 기원했다. 스님은 “1963년 9월 22일 동국대 중강당 9번째 줄에서 대불련의 창립을 함께했다. 당시에는 현수막 하나 내걸기 어려워 전법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생 법우들과 점심을 굶어가며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열정을 다했다”며 “대학생전법을 위한 상월결사의 새로운 불교활동과 대불련의 전법활동이 어우러져 대학생 불자들의 영향력이 여기저기 뻗어 나가고 활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찬영 사무총장은 “대불련은 불교의 사회참여 확산과 불자 인재 배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대불련과 총동문회는 대불련 발전에 진력한 이순규 박사(전남의대 59학번), 이장백 박사(경북의대 61학번), 백효흠 26 · 27대 동문회장(경상대 70학번)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특히 대불련 선후배가 서로 악수를 하며 안녕을 기원하는 윤장인사도 눈길을 끌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응원과 덕담을 건넸고, 후배들은 대불련의 성장 · 발전에 힘써준 선배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기념법회는 동불108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중앙승가대 교수 선각 스님의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봉독’ 특별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기념법회에 앞서 대학전법센터 건립 천일정진 회향식도 진행됐다. 평택 보국사 주지 법현 스님과 서울 약사암 주지 일휴 스님이 대학전법센터 건립 회향을 축원했으며, 금강경 · 법성게본 · 사경본을 봉정했다. 총동문회는 대불련을 위한 불교회관 건립을 목표로 2020년 12월 27일 기도에 입재했다. 서울, 제주,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의 대불련 동문과 불자들이 동참, 현재 5억여 원의 불사금이 모연됐다. 동문회는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초가을 봉녕사서 만나는 ‘사찰음식 진수’

10월 6~7일, 경내서 ‘2023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

사찰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사찰음식으로 불교의 맛과 멋을 알려온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가 10월 6~7일 경내에서 ‘2023 제14차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한다.

행사는 ‘우주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전 세계 주요 화두인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사찰음식의 친환경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6일 첫날에는 사찰음식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 전시를 시작으로 두부 만들기 시연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차명상, 육법공양, 탁발순례, 나눔 찻자리, 사찰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 실습강좌(더덕대추전, 우엉찹쌀전)도 준비됐다.

둘째 날에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졸업식과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특강(배추김치, 좁쌀알타리)이 이어진다. 또 2시 30분부터 야외무대에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이 진행되며, 조선마술패, 우담화합창단의 공연으로 축제가 마무리된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걸어서 템플 속으로 2’ 누적 142만뷰 돌파

웹툰 공개 2주 만에…71개국 구독 · 별점 9.9점 기록

불교설화를 소재로 한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이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걸어서 템슬 속으로 시즌 2’가 공개 2주 만에 누적 조회수 142만회를 돌파했다. 웹툰은 71개국에서 구독 중이며, 별점이 9.9점을 기록하는 등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주사 천불천탑 편.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심해 만든 결과물이다. 특히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스튜디오 타이거)가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웹툰 4편과 무빙툰 2편 등 총 6편으로 구성된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에서는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운주사의 천불천탑, 설악산 신흥사의 울산바위, 건봉사의 십바라밀석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불국사와 운주사 이야기는 무빙툰으로도 제작돼 볼거리를 더한다.

웹툰은 한국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홍보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웹툰에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보니 더더욱 가보고 싶다” “마치 문화유산답사기를 보는 듯하다” 등의 훈훈한 댓글이 이어졌다. 문화사업단은 웹툰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월정사, 5천 불자 동참 ‘금강경 사경소지 법회’ 연다

3월 입재한 ‘기도혁명’ 금강경 기도
5800세대 동참…매월 철야정진도
10월 14일, 탑돌이 후 사경집 소지
자현 스님 “기도 수행 혁명 이룰것”



금강경봉찬기도 기도신행국 국장 자현 스님(좌)과 과장 승우 스님이 10월 14일 월정사에서 봉행되는 금강경 사경 소지 대법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월부터 ‘기도혁명’ 금강경 봉찬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가 5000여 불자들이 동참하는 ‘금강경 사경 소지 대법회’를 개최한다.

월정사는 10월 14일 경내에서 ‘금강경 봉찬기도’를 봉행하고 사경집 소지와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1일 입재한 금강경 봉찬기도는 금강경을 매일 수지독송하고 사경하는 기도프로그램이다. 월정사는 한암스님이 불교 발전을 서원하며 1931년 발족한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양회(봉찬회)’를 복원, 매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신행결사체를 만들었다.

금강경 봉찬기도는 입재 반 년만에 5800세대가 동참할 만큼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전용 앱인 ‘월정사 금강경’과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 중계를 활용, 매일 기도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월정사에 모여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백고좌 수계법회에서는 1만2000여 명이 계를 받았다. 특히 금강경 봉찬기도 동참자들은 승보공양에도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중앙승가대에 3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육바라밀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월정사는 불자들의 수행 독려와 신심 증장을 위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금강경 사경 소지 대법회’를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법회는 탑돌이와 사경집 발원문 소지에 이어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철야기도로 이어진다. 월정사는 법회를 위해 〈금강경 사경집〉을 직접 제작, 현재까지 전국에 약 1만3000권을 배포하고 금색 펜으로 매일 사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월정사 교무국장)은 “금강경 봉찬기도는 경전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여행하듯이 일상처럼 행하는 금강경 봉찬기도가 한국불교 발전과 세계화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경 봉찬기도는 전용 앱 ‘월정사 금강경’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매일 ‘기도함’에 향을 사르고 1000원을 올린 뒤 금강경을 1회 이상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한편 월정사는 10월 13~15일 경내에서 ‘오대산 문화축전’을 진행한다. 20주년을 맞이한 오대산 문화축전은 오대산 역사문화의 전통 계승 및 복원을 통한 전통문화축제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통합의 문화축제,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문화축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테마축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첫날 개막식은 승려노후복지시설인 승가림 기공식, 오대산문 현판식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공연으로 박칼린 감독이 연출과 원작을 맡은 오대산 뮤지컬 ‘리파카 무랑’이 선보이며 오만진신 보살계 백고좌 수계대법회 등도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잔나비 밴드의 ‘희무지개 너머, 서대’와 오대산 합창제 ‘피어나는 환희로, 중대’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차 시음과 작은 공연이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소통의 화음’ 봉은사 경내 가득 채웠다

9월 15일, 2023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연주

아시아 11개국 전통악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경내를 가득 채웠다.

봉은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주최로 9월 15일 경내 보우당에서 ‘2023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는 한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등 총 11개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 고유의 전통오케스트라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총 5곡이 연주됐다. 연주회는 11개국에서 온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봉은국악합주단(지휘자 박천지)의 협연으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컸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한상일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지휘자들이 함께한 연주는 평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박범훈 원장은 연주 중간중간 아시아 전통악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하나로 뭉쳐 조화로운 연주가 된 것처럼 하나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초가을 북한산, 詩로 장엄하다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유심’ 재창간 시낭송회

9월 23일 서울 무산선원서 열려
조정래 작가 등 문인 대거 참여
무산 스님 시비 제막식도 진행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하고 설악 무산 스님이 복간했던 〈유심〉의 재창간을 기념하는 시낭송회가 열렸다.〈사진〉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는 9월 23일 서울 성북구 무산선원에서 ‘〈유심〉 재창간 기념 전통차 문화축제 및 시 낭송 ·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을 비롯해 조정래 소설가, 나태주 시인, 이근배 시조시인, 문태준 시인 등 한국 대표 문인과 김영배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민과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음대 현악4중주단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시 낭송 · 음악회는 무산스님 시비 제막식과 래퍼 치타 공연, 축하케이크 절단과 무산 스님의 대표 작품인 ‘파도’ ‘아득한 성자’ 낭송, 〈유심〉 재창간호 수록 시인 작품 낭송 등이 진행됐다.

조정래 소설가와 나태주 시인은 무산 스님의 대표작인 ‘파도’와 ‘아득한 성자’를 낭송했다. 낭송에 앞서 조정래 소설가는 무산 스님과 인연을 소개하며 “시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 무산 스님은 살아생전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시인으로 부활했다”고 평했다.

이어 “‘마음 하나’ ‘파도’가 스님의 대표작인데 이를 보면 문학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시는 압축, 생략, 은유가 있어야 하고 비약과 파격이 있어야 한다. 무산 스님의 시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달자 〈유심〉 편집주간은 무산 스님이 전한 상생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신달자 편집주간은 “무산선원은 부처님 도량이지만 성모도 함께 한다. 이는 무산 스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상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무산 스님의 상생의 가르침을 오늘 오신 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심〉 재창간호에 작품을 게재한 문태준, 구중서, 유자효, 이종문, 오세영, 박라연, 이근배, 정호승 등 시인들의 낭송으로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설악산 신흥사, 추석 앞두고 400세대 나눔

9월18일, ‘44회 자비나누기’…5천만원 상당 물품 지원

설악산 신흥사(주지 지혜)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신흥사는 9월 18일 신흥사복지재단과 함께 속초시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내 저소득 가정 400세대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사진〉 햅쌀 4kg, 혼합과일세트 1박스, 지역상품권 등 추석에 필요한 물품이 각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2007년부터 17년째 이어온 자비나눔 행사는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나눈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며 “웃으며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의지를 잃지 않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